

교모로 인해 교합고경이 감소된 부분 무치악 환자의 수복 증례

정신형 *, 장익태

(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)

마모에 의해 교합고경이 서서히 상실된 경우 저작 근육 및 신경계는 변화된 고경에 적응하게 된다. 새로운 교합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직고경을 회복시키는 시도에 있어서 저작 근육과 신경계의 적응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. 교합고경을 회복한 후 안정된 교합을 평가하고 심미적이며 기능적인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.

본 증례의 환자는 구치부가 엇갈리게 상실되어 대합관계가 소실되고 교합평면이 canting되며 상악 전치부의 도재 보철물로 인해 하악 전치부가 심하게 마모되고 치근만이 잔존하여 저작기능 및 심미의 회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수직악간관계에 대한 검사 후 교합기 상에서 5mm의 교합고경을 확보하였고 diagnostic wax up을 하여 stable한 전방유도와 대합관계 및 적절한 심미를

보이는 provisional restoration을 제작하고 1개월 동안 환자의 적응도를 평가하였다. 교합이 안정된 상태에서 customized anterior guide table을 이용하여 전방유도를 최종 보철물에 재현하였고 구치부 지지는 lingual milled ledge & channel을 이용하여 clasp를 생략한 심미적 RPD를 사용하여 얻었다.

이러한 일련의 치료과정을 통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수복이 가능했기에 증례보고를 하는 바이다.